

한옥 세계화 · 현대화 · 대중화 '앞장'

전주한옥산업관 중심 한옥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수출 상담 · 마케팅으로 한옥산업 육성 기여

전주시가 한문화 중심도시답게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옥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한옥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에 개관한 전주한옥산업관을 중심으로 한옥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한옥 수출 상담·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전통한옥 보존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 통한 K-컬처 세계화,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옥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한옥산업관을 조성해 개방한 바 있다.

전주한옥산업관은 개관 이후 한옥의 세계화·현대화·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한옥산업관 방문객들에게 한옥건축·관리 일반상담과 해외 한옥 수출 상담·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옥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자원을 활용한 정보제공과 자문에 힘써왔다.

특히 전주한옥산업관은 해외 한옥수출 마케팅 비즈니스 상담 등 활동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기관 및 민간에서 한옥건축 조성을 의뢰 받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통한옥 건축양식·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한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일상에서 한옥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 주제 전시 및 특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왔다.



전주시는 한옥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한옥마을에 개관한 전주한옥산업관을 중심으로 한옥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한옥 수출 상담·마케팅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한옥산업관에서는 △한옥모형·도구·고부재 상설전시와 지자체 최초 '2025 국가유산기능인자품전 수상작 한옥부분 전시, △전주정일문화센터 연계 시민참여 한옥과 어우러지는 '한옥정원'을 조성해 한옥 고유의 가치를 알리고 '머무르는 공간'이 되도록 공간 활성화에도 노력해왔다.

여기에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한옥분야' 특별전시(2월 중) △한옥가구 맞춤·이음 조립체험(2월 중), △한옥건축가 및 교수 등 전문가 한옥주제 특강(매월 1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전주한옥산업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한옥산업 육성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주한옥산업관에 대한 관심 속에 국내외 기관·단체의 관심과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일

례로 지난 15일에는 '국토교통부·언론인 한옥건축 정책현장 전북지지도 방문'과 관련해 한옥산업 정책 우수사례 현장으로 전주한옥산업관을 찾아 전주한옥산업관 조성 과정과 한옥산업 육성 운영사례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기사는 "전주가 한옥마을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한옥의 현대화에도 이렇게 노력하는지를 몰랐다"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전주가 대한민국 한옥의 메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한옥산업관 전진기지를 거점으로 지역 한문화기반·문화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한옥과 연계해 새로운 K-콘텐츠를 발굴하고, 대내외 마케팅 활동을 토대로 한옥을 산업으로 키워가며 한옥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진안군은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에 나선다. 사진은 겨울 사양재 전경.

진안으로 놀러오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군내 가맹점 소비 금액 최대 10만원 환급

진안군은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여행 전 진안고원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통하여 사전 신청한 뒤, 진안군 내 가맹점에서 소비한 금액을 정산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실질적인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등 스마트관광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며, 소비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번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안군 전체의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업소 확대와 운영 방식 고도화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에는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스마트관광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객 맞춤형 혜택 제공과 편리한 여행 환경 조성에 힘쓰며,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시, 제1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 구성



군산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진단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2026년 제1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군산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진단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2026년 제1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8일 위촉장을 받은 제1기 시민평가단은 총 30명으로 2026년 약 1년간 활동하며, △시각전시 △공연예술 △문화창작 △전통문화 △기타 등 5개 분과로 나누어진 문화예술 분야 행사를 직접 현장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추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와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부서 검토 시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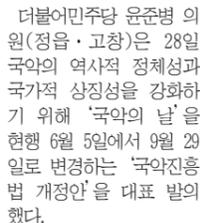
한편 위촉식 당일에는 문헌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의 교육도 실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평가 방법 및 현장 점검 요령에 대한 지식을 숙지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평가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기반도 다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악의 날' 9월 29일로 변경 법안 발의

민주 윤준병 의원, '국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 날짜가 겹쳐 기념일 중복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국가 차원의 종합 음악서인 '악학궤범'의 편찬일을 기준으로 국악의 날을 정하도록 했다. '악학궤범'은 정악과 민속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악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음=김태환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